

국립·광역 문화유산 연구기관, 기후 위기 대응 공동포럼

전문문화재단 국가연구소, 연구기관 협의체 업무약정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 등 실질 방안 중점 논의

(재) 전남문화재단 국가유산연구소는 최근 광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국립 문화유산 연구기관 협의체 업무약정(MOU)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성과 공유, 인력 교류 등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포럼은 기초강연과 1·2부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초강연에서는 신방실 KBS 기상전문기자가 '기후위기 시대, 문화유산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와 문화유산 보호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1부에서는 산불피해 문화유산 수습조사와 방재대책, IoT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 위기 대응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국가유산연구소 박홍준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2부에서는 문화유산 리스크 평가, 생활피해 영향, 재난 대응 절차 등 현장 적용 중심의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역 간 역할 분담, 재난 대응 매뉴얼 공동 개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지속적 확대와 후속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국가와 지역 연구기관 간 협력을 체계로 구축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 전남문화재단 국가유산연구소는 최근 광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광역 문화유산 연구기관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유산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사진은 공동포럼에 앞서 열린 연구기관 협의체 업무약정식 모습. 사진제공=전남문화재단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국가와 지역 연구기관 간 협력을 체계로 구축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최무진·정찬용·김성숙씨 '제32회 서구민상' 수상

나눔 확산 공로...내달 7일 서구민의 날 기념식서 시상

광주 서구가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제32회 서구민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 서구민상은 1994년부터 시작된 서구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사회·봉사 부문 최무진(58), 교육·문화·체육 부문 정찬용(62), 지역·경제 부문 김성숙(73·여) 씨다. 최무진씨는 ㈜나눔테크 대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썼다. 또한 서구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1억원 후원을 약속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과 기부를 실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찬용씨는 (사) 대한검정회 광주지역본부장으로 맨발걷기 동호회 회장과 슬로우조깅단 단장을 맡아 주민 건강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섰다. 특히 '맨발로 청춘학교'를 기획·운영해 주민 건강행태 개선에 기여했으며 맨발길 환경 정비에도 참여한 안전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에 힘썼다. 김성숙씨는 화정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지역 환경 사회공헌사업, 체육행사 후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또한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자립 지원과 지역경제



사회봉사 부문 최무진씨



교육문화체육 부문 정찬용씨



지역경제 부문 김성숙씨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화정3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합창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이들의 공로가 널리 알려져 나눔과 참여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민상은 지금까지 개인 83명과 단체 13곳에 수여됐으며, 시상식은 5월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리는 '제32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2일 드림투데이가 광남일보 사옥 1층 대연회장에서 창간 22주년 기념식을 열고 "빠르고, 다르고, 편리한 언론"으로의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다.

드림투데이 창간 22주년 오성수 대표 "더 사랑받는 미디어 되겠다"

본사 임직원·지역기자 한자리에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 창간 22주년을 맞은 드림투데이(회장 양진석)가 '빠르고, 다르고, 편리한 언론'을 내세우며 변화와 혁신 의지를 다졌다. 드림투데이는 22일 광남일보 사옥 연회장에서 제22주년 창간기념식을 열고 '시민공간 바른언론'을 사시로 지역민의 대변자가 돼 22년을 돌아보고, 통합특집 시대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본사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창간 22주년을 축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오성수 대표는 기념사에서 "제호가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근간은 여전히 시민과의 공감이었다고, 바른언론이란 지향

성은 일관됐다"면서 "드림투데이는 오피라인보다는 온라인, 스트레이트보다는 기획기사가 강점인 특화된 지역 언론으로 확고하게 정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언론 환경은 보다 빠르고, 보다 다르고, 보다 편리함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다"면서 "드림투데이의 장점을 더욱 살리고 부족한 부분,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독자들에게 더 사랑받는 언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 참석자들은 드림투데이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지역과 독자를 잇는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아울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는, 독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미디어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다시웃는치과의원 개원 시설 확장 이전...연중무휴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해 있던 서울프라임365치과병원이 최근 상호를 '다시웃는치과'(양현주 대표원장·사진)로 변경하고 새롭게 개원했다. 새로 이전한 장소는 무등도서관 건너편 인근으로, 교통이 편리해 광주 시내 내권 뿐만 아니라 시외에서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병원은 1~2층 치과 단독건물로, 진료실 25개, 상담실 4개, 수술실 5개로 구성됐다. 회복실과 파우더룸 등도 갖추고 있다. 내원객의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과 시설은 물론 주차시설까지 갖췄다. 다시웃는치과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평일 주간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 지역영업을 위함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오후 1시까지 진료한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보훈병원, 환자·보호자 대상 건강강좌

재활의학 정보 공유

광주보훈병원은 최근 전문진료센터에서 '2026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을 맞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활의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강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다시 일상으로, 함께하는 재활의학 이야기'를 주제로 재활학과 임이나 전문의가 재활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으며, 최유빈 작업치료사가 '삼킴장애의 이해와 재활운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관리법을 공유했다.



광주보훈병원은 최근 전문진료센터에서 '2026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을 맞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윤서라 광주보훈병원 전문재활센터장은 "재활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매 순간 희망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일해 주시는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짧은 강좌지만,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스릴 수 있는 데 유익한 밑거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보훈병원은 건강강좌 외에도 전문재활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들순이 국화빵·복사꽃빵' 화순 봄꽃 축제서 인기

지역 가공식품 육성 성과...축제 먹거리 브랜드 자리매김

화순 지역 대표 먹거리인 '들순이 국화빵'과 '복사꽃빵'이 봄꽃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화순을 찾은 관광객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막한 '2026 화순 봄꽃 축제'가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봄꽃과 함께 화순의 먹거리들이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

다. '들순이 국화빵'은 지난 2019년 화순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 한국생활개선화순군연합회에 전수한 가공식품으로, 축제 현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대표 먹거리다. '복사꽃빵'은 2025년 지역축제 연계 가공식품화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가을꽃 축제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품질 개선을 거쳐 이번 봄꽃 축제에서도 관



2026 화순 봄꽃 축제 현장에서 '들순이 국화빵'과 '복사꽃빵'을 홍보·판매 중인 한국생활개선화순군연합회 회원들 모습.

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복사꽃빵'은 '들순이 국화빵'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순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의 꽃(복사꽃)을 영상화한

것이 특징이며,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축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먹거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남광주농협은 최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공로로 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남광주농협, 연예인 사칭 금융사기 피해 막아

학림지점 소해경 과장, 남부경찰서 감사장 받아

남광주농협은 최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공로로 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13일 한 고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반테러 확인서 수수료'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하려 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학림지점 소해경 과장은 고객의 거래 정황이 비정상적임을 즉시 포착하고 송금을 만류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특히 남광주농협은 단순히 현장에서 송

금을 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고객에 다른 지점이나 타 금융기관을 통해 재차 송금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 지점에 내부 통신문을 긴급 발송하는 등 전 사적 차단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영준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최근 금융사기 가습수 폭증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고객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